

단아함

안

행,

은평 한옥 마을을 펜스에 담다.

2022.10 하나고등학교 지역 연계 프로젝트

단아함 학익

은평 한옥 마을을 렌즈에 담다.

우리의 한옥은 자연과 닮아 있다.

소박하고 수수한 색과,

자연스럽게 뻗어 있는 곡선,

그 속에 숨어있는 저마다의 각기 다른 아름다움.

유달리 곡선을 많이 활용하고 자연의 모습 그대로를 지키려 했던 선조들의 한옥은 자연과 무척이나 잘 어울린다. 우리의 선조들은 나무와 돌을 가공하기 보다는 있는 그대로의 자연을 재료로 활용하고, 무엇보다도 건물이 주변의 풍경과 잘 어울리게끔 한옥을 지었다. 이런 한옥을 보며 우리는 선조들이 자연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다. 나무 그대로의 결을 살린 대문, 구부러진 채 하늘을 향해 손을 뻗는 처마 끝, 자연에서부터 영감을 받은 무늬가 새겨진 벽, 그리고 사시사철 자연과 함께 할 수 있게끔 크게 뚫려 있는 창문. 모두가 한옥의 아름다움을 배로 강조한다. 화려한 색으로 꾸미기보다는 소박한 진회색과 갈색, 그리고 백색 계열의 기와와 벽, 창문은 한옥에 수수한 멋을 더해준다.

시간이 흐르며 잠시 우리와 멀어졌던 한옥은, 21세기가 되어 다시금 우리의 시야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한옥 열풍이 시작되며 단순히 한옥을 아끼고, 그 아름다움을 사랑하는 데에 그치지 않는 사람들이 등장했다. 우리 한옥 고유의 전통적 아름다움에 저마다의 개성을 더한 새로운 형태의 한옥들을 짓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들이다. 그런 이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은평 한옥 마을이다. 우리는 은평 한옥 마을의 새로운 아름다움에 주목하고자 한다. 그리고 그 아름다움을 '단아함'이라는 말로 표현하고자 한다. 은평 한옥 마을의 문과 지붕, 창, 그리고 벽에서 전통적이고 새로운 아름다움을 발견하고자 한다. 은평 한옥 마을의 단아함을 렌즈에 담아내며, '단아함 한 획,' 을 긋는다.

門

宇

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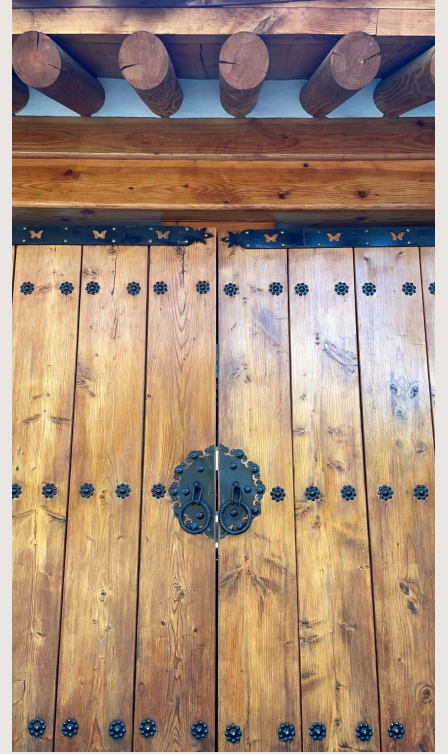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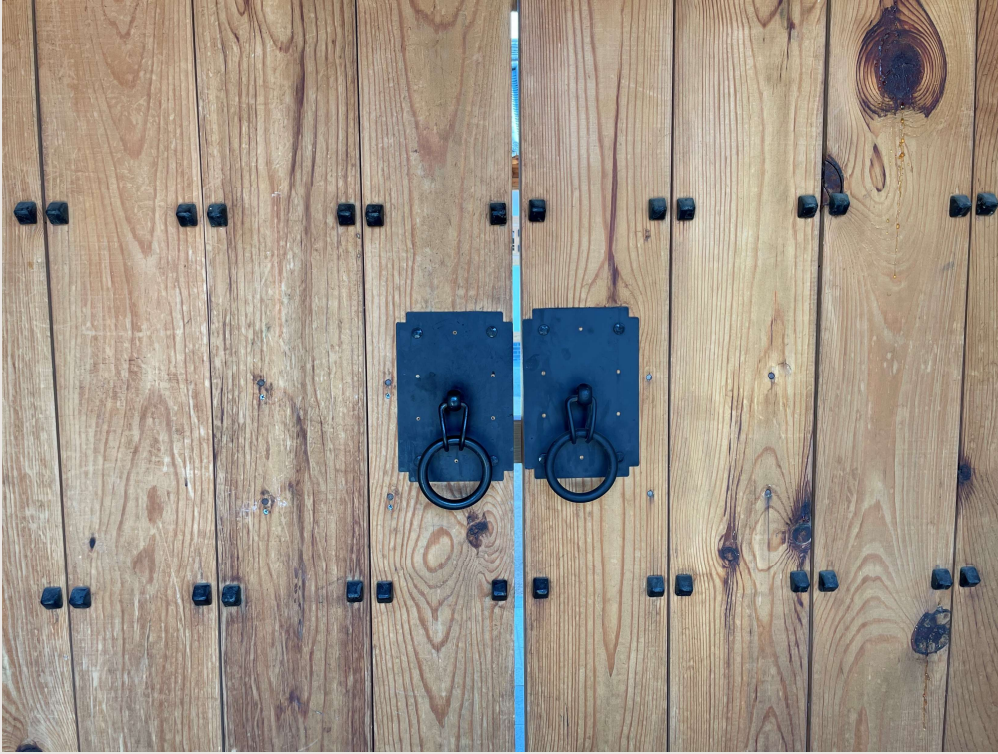
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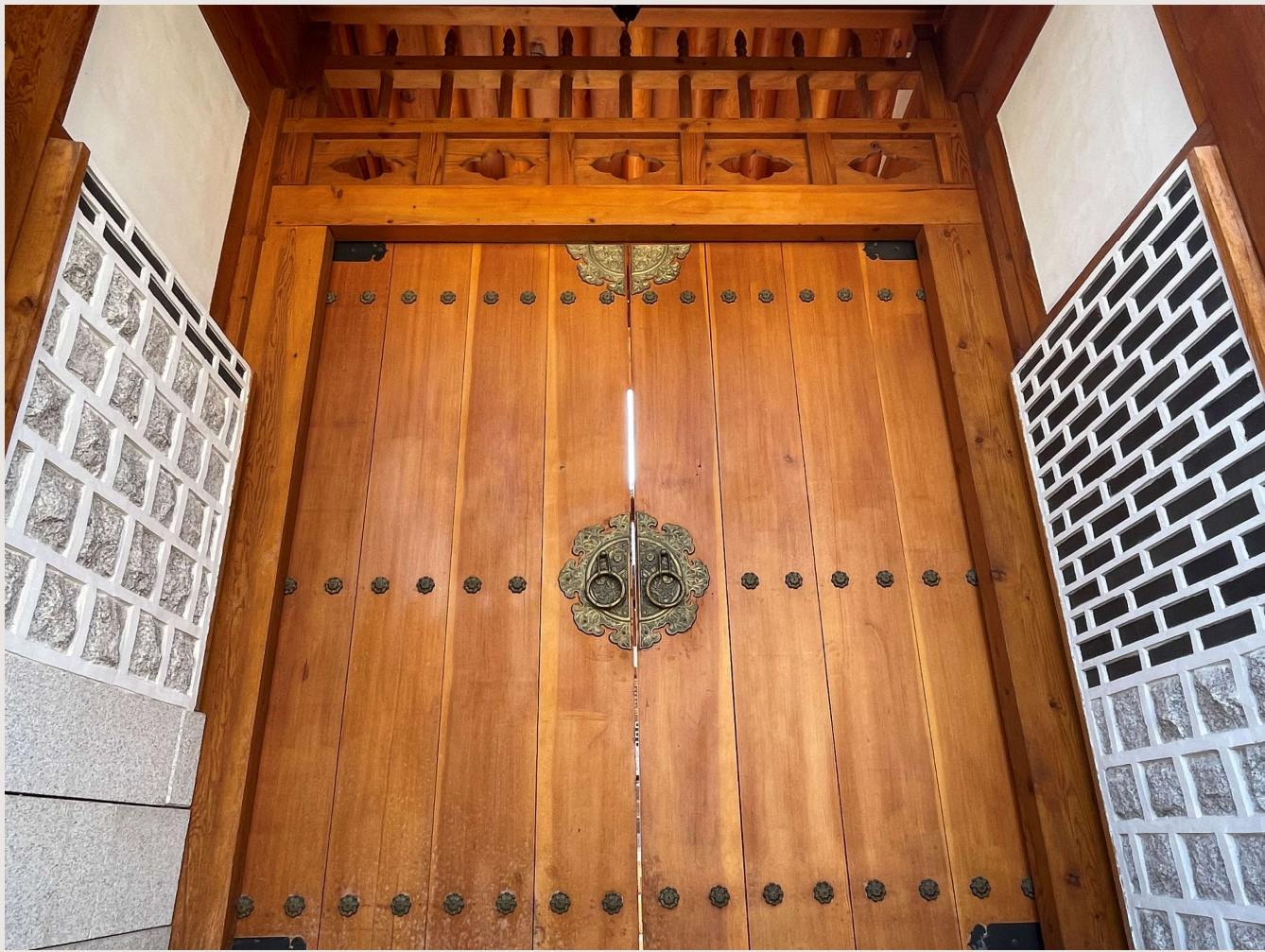
門

나무로 만들어진 한옥의 대문은 기와를 얹어 완성된다. 쇠로 만들어진 문고리는 아름다운 문양으로 꾸며져있다.

집의 안과 밖을 나누는 문은 한옥의 안으로 들어가는 첫 관문이다. 집으로 들어가는 통로이자 동시에 외부인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 문은 서로 다른 한옥들이 가진 이야기에 궁금증을 품게한다.



균게 달힌 문 틈 사이로 보이는 빛은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하곤 한다.
문들은 같은 기능을 하고 있지만, 서로 다른 모양의 문고리를 통해 개성을 드러내고 있다.











고유의 한옥에 새로운 현대적 개성을 더한 은평의 한옥에는 이런 형태의 문도 등장한다. 담장과 같은 높이에 위치한 문은 밖의 풍경을 바라보는 시야를 넓혀주며 담과 문의 역할을 동시에 한다.



새로운 유형의 한옥에서는 창틀에 문을 달기도 한다.
또, 고유의 한옥과는 다르게 창호지 대신 유리로 창의 소재를 활용하기도 한다.



門

宇

壁

窓



한옥에서 지붕은 곡선이 가장 잘 드러나는 부분이다. 높이 솟아 올라 구름에 닿을 것만 같은 처마 끝은 곡선으로 구부러져 있어 구부러진 나뭇가지와 잘 어우러지고, 진한 회색 빛의 기와는 한옥의 단아한 멋을 배로 해준다. 자연에서부터 영감을 얻은 다양한 무늬의 수막새와 암막새는 한옥에 개성을 더해준다. 살짝 튀어 나와 있는 지붕의 끝 덕분에 비가 오는 날에도 풍경을 즐길 수 있었다.

宇











한옥의 나무와 기와는 푸른 빛의 하늘과 잘 어울리는 빛깔을 뽐낸다.





은평의 한옥 뒤로 하나고등학교가 보인다.
현대의 한옥은 주변 풍경과 새로운 유형의 조화를 이룬다.



지붕의 자연스러운 곡선과 우뚝 솟은 북한산이 조화를 이룬다.



가을의 꽃과 한옥은 예나 지금이나 아름다운 어우러짐을 보여준다.



門

字

壁

窓



집 각각의 개성을 드러내는 벽.
벽은 외부와의 경계로서 자신의 영역을
규정하는 동시에, 집주인에게 치장되어
집의 위세나 권세를 과시하기도 한다.
나아가 '뚫을 수 없다'는 인식이 강한 벽
은 집의 보호적인 측면을 강화한다.

흙, 돌, 울타리, 심지어는 나무 한 그루
로도 담장을 만든다. 이런 의미에서 담
장은 한 집의 개성을 표현하는 수단이며
집의 분위기를 보여주는 한 단서라고 할
수 있겠다.

壁



취향에 맞는 재료와 디자인으로 조각된 담장이 보인다.
담장은 외부인이 첫 번째로 보는 집의 모습이므로
집의 분위기를 가장 잘 나타내는 요소라 할 수 있다.





동양과 서양 모두에서, 담장과 식물은 결코 떨어뜨려 놓을 수 없다.
자칫 지루할 수도 있는 무채색의 담장에 초록의 식물은 생기를 불어넣으며
다시금 자연 친화적인 한옥의 모습을 강조한다.







창문과 담장, 문이 다 들어있는 구도. 직선의미를 자랑하는 한옥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준다.





마치 봉화대처럼 설계된 한옥 벽의 모습이다.







각기 다른 벽의 모습을 보여주며, 집의 개성과 분위기를 뽐낸다.



門

宇

壁

窓

窓

우리는 흔히 '열림'과 '닫힘'으로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곤 한다. 개방적이고 수용적인 자세라면 '열림'을, 좀 더 개인적이고 가족과의 시간을 원한다면 '닫힘'을 선택하는 것처럼 말이다. 그런 의미에서 열림과 닫힘, 이 두가지 속성을 가진 창문은 한옥에서 조화를 담당하는 핵심적 요소로 볼 수 있다.

은평 한옥마을에서는 창호에 한지를 발라 마무리하는 전통 한옥과 다르게, 한지가 아닌 유리를 사용한 현대 한옥의 모습이 눈에 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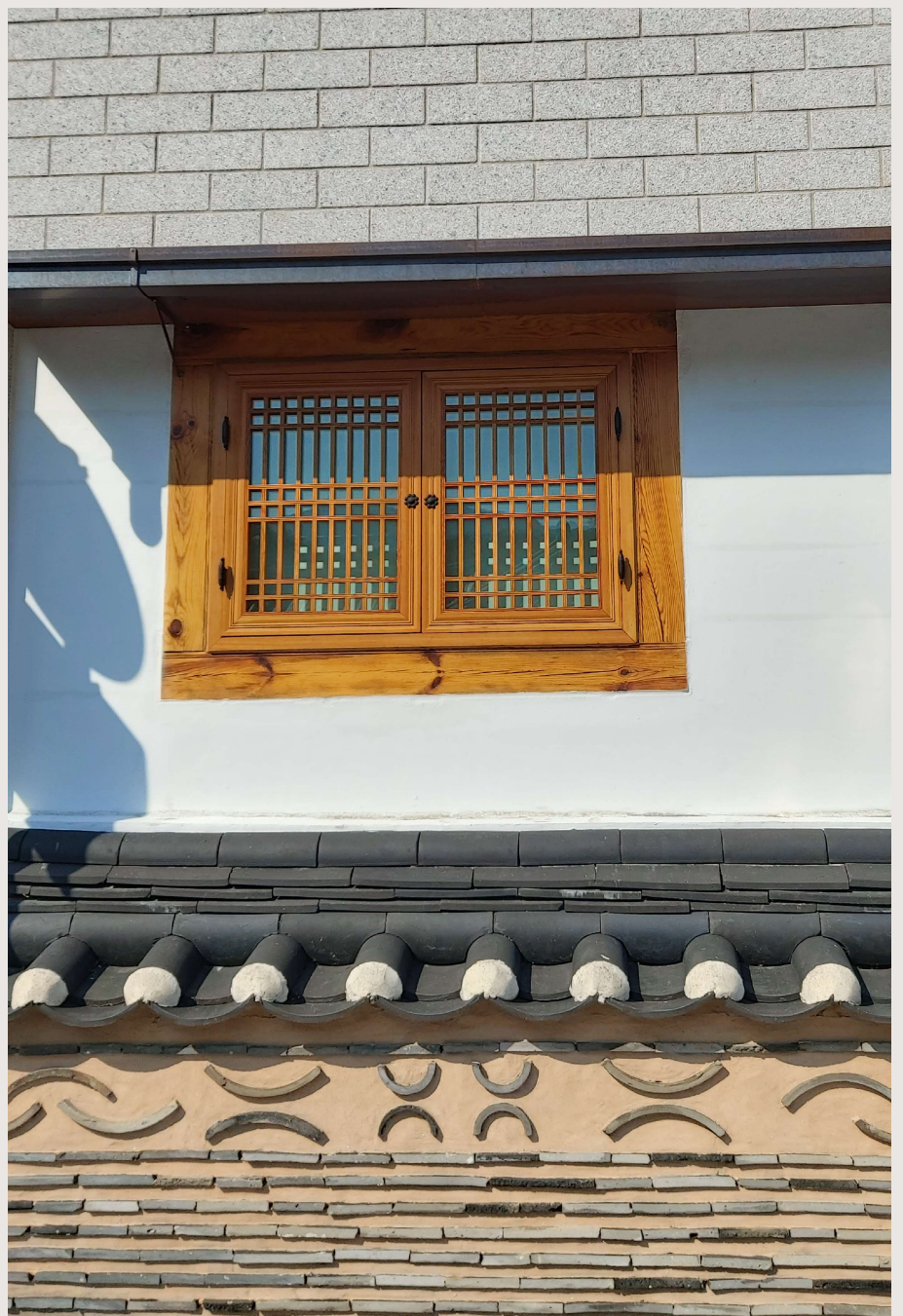




전통창호지를 대신하는 유리는 한옥에 투명함과 빛을 더해준다.



모든 면이 유리인 한옥은 현대 한옥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듯 하다.



단아함 한 획,



2022년 하나고등학교 지역 연계 프로젝트

김신영, 배소윤, 윤태연, 이단희